



Not Rated

주가(1/7): 60,900원

시가총액: 6,004억원



스몰캡 Analyst 오현진

ohj2956@kiwoom.com

RA 조재원

jwon2004@kiwoom.com

## Stock Data

KOSPI (1/7)		2,492.10pt
52 주 주가동향	최고가	최저가
최고/최저가 대비	66,300 원	19,220원
등락률	-8.1%	216.9%
수익률	절대	상대
1M	35.0%	31.6%
6M	34.0%	53.9%
1Y	190.0%	198.8%

## Company Data

발행주식수	9,858 천주
일평균거래량(3M)	289천주
외국인 지분율	3.2%
배당수익률(2023)	0.0%
BPS(2023)	44,987원
주요 주주	LS전선 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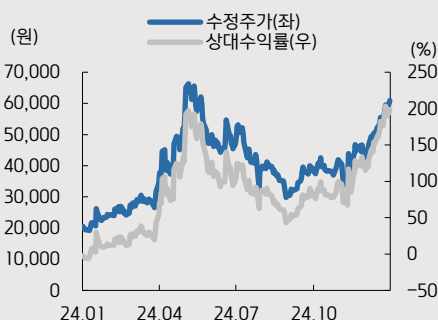
##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	2024E
매출액	1,070.4	1,416.5	1,498.6	1,616.1
영업이익	16.6	28.5	43.7	47.1
EBITDA	24.6	36.9	52.0	56.5
세전이익	8.8	13.3	28.4	41.0
순이익	5.9	10.5	17.9	32.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9	10.5	17.9	32.0
EPS(원)	1,125	1,936	2,737	3,484
증감률(% YoY)	-38.4	72.0	41.4	27.3
PER(배)	17.5	9.6	7.7	15.6
PBR(배)	0.38	0.40	0.47	1.43
EV/EBITDA(배)	8.9	5.8	3.8	10.8
영업이익률(%)	1.6	2.0	2.9	2.9
ROE(%)	2.2	3.7	5.6	9.1
순차입금비용(%)	45.3	29.1	19.6	20.3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지앤피 편입 이전 기준

## Price Trend



## 기업브리프

## 가온전선 (000500)

## 바다 너머로, 바다 속으로



동사의 주력 제품은 중저압 송배전케이블이다. 국내외 전선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마진이 높은 북미/해외 매출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2025년에는 지앤피, LSCUS의 자회사 편입 효과로 실적이 급증할 전망이다. LS전선과 함께 해상풍력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해저케이블 신사업도 준비할 예정이다. 올 한해 동안 실적 성장과 신사업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 &gt;&gt;&gt; 북미향 매출 성장과 자회사 편입 효과

2025년 연결 매출액 2조 5,267억원(+49% YoY), 영업이익 875억원(+82% YoY, OPM 3.5%)을 전망한다. 별도 기준 전력선 해외 매출은 1,086억원(+37% YoY)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4년 일부 태양광 프로젝트 지연으로 주춤했던 북미향 케이블 매출 회복과 미국 내 추가적인 사업 성과(유통 제품 확대, 전력청 수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LSCUS 인수를 통해, 연간 3~4천억원 규모의 전력선 매출 증가도 기대된다. LSCUS 실적까지 포함한 올해 전력선 내 해외 매출 비중은 2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마진이 높은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전사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0.7%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gt;&gt;&gt; 해저케이블 신사업: 함께 더 멀리

동사는 LS전선으로부터 해저케이블 기술 이전을 받아 해상풍력 해저케이블(Inter-Array Cable) 시장으로도 진입할 예정이다.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의 사업 기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S전선과 계열사들(LS에코에너지, 가온전선, LS마린솔루션)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사는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해저케이블 공장 신설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해저케이블 공장 신설에 적어도 3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올해 안에 해저케이블 사업 준비에 착수해야만 해저케이블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28~2029년에 LS전선과의 협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사가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Inter-Array Cable 공급을 담당할 경우, 2029년부터는 연간 최대 7천억원 이상의 매출 발생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gt;&gt;&gt; 주가: 수출 비중 확대+신사업 기대감이 견인

그간 동사는 초고압/해저케이블 대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중저압케이블 중심의 매출 구조 때문에 타 업체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주력 제품 수출 비중 확대와 고부가 제품(해저케이블)으로의 다변화 기대감이 이를 해소시켜줄 것이라 판단한다. 동사와 함께 LS그룹에 속해 있는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의 주가는 1)신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거나, 2)LS전선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 또는 가시화될 때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비춰볼 때, 해저케이블 사업 계획 구체화 및 관련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올해에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가온전선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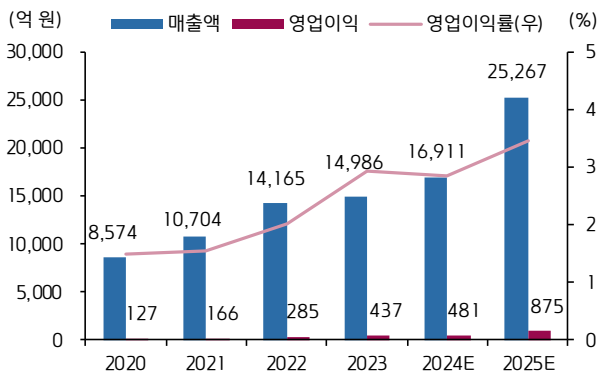
전력케이블(HV, MV, LV)과 통신케이블을 생산 중이며, 전력케이블 매출 비중이 85%를 상회한다. 국내 전선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40%) 1위를 유지하고 있다. LS전선의 계열사이며, LS전선으로부터 초고압케이블 기술 이전을 받는 등 기술적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LS전선은 초고압, 해저케이블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고, 동사는 중저압 송배전케이블을 주력으로 생산함으로써 사업 전략적으로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동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군포, 전주 공장 외에도 모보, DKC, 이지전선과 같은 자회사들을 통해 제품을 생산 중이다. 자체 공장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자회사 및 OEM을 활용한 추가 생산 여력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앤피, LSCUS 인수를 통해, 동사 CAPA와 매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외 전선 수요 증가와 구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2021년부터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되었다. 또한 내수 대비 마진이 높은 북미 지역 등으로의 해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이익률 개선에 기여하였다. 전력선 해외 매출은 '21년 478억원→'22년 875억원→'23년 996억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전력선 매출 내 수출 비중은 '21년 5.3%에서 '23년 7.6%로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전사 영업이익률은 '21년 1.5%→'22년 2%→'23년 2.9%로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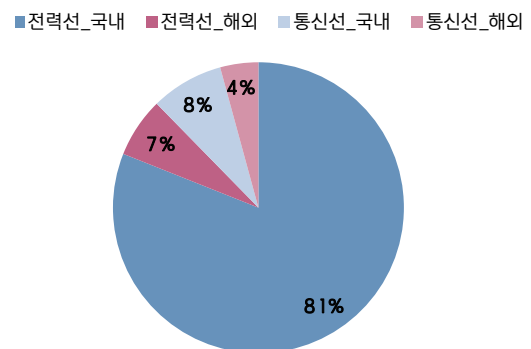
2024년 전력선 해외 매출은 790억원(YoY -21%)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 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태양광 프로젝트들이 지연되며, 케이블 사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2H24부터 점진적으로 관련 영향이 해소 중이라는 점, 미국 내 늘어나는 전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나일론/고무 절연 케이블) 및 고객(전력청 등) 다변화를 준비 중이라는 점, 연내 LSCUS 인수 예정이라는 점에서, 올해부터 해외 매출 비중이 재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온전선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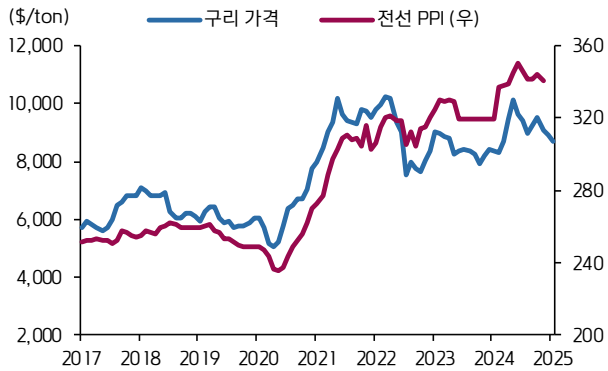
자료: 가온전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사업부별 매출 비중 (2023년 기준)



자료: 가온전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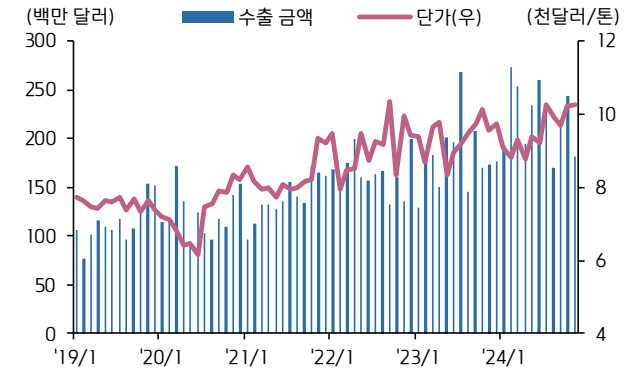
## 구리 가격, 미국 전선 PPI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FRED,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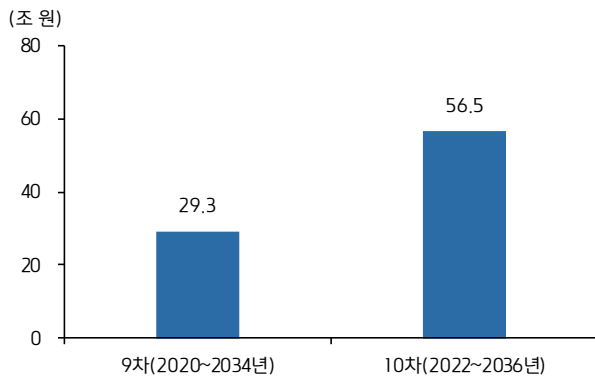
주: 전선 PPI는 1982년 12월 = 100

## 전선 수출 금액, 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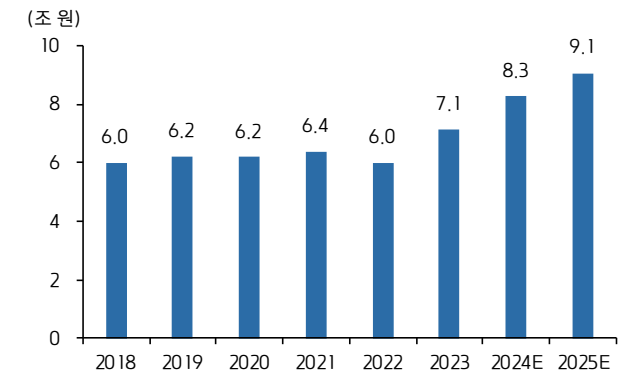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투자 규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전력 송배전 관련 투자 규모



자료: 한국전력,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지애플/LSCUS 인수에 따른 성장 기대

2025년부터 지애플, LSCUS의 자회사 편입 효과로 인한 실적 성장을 전망한다. 지애플은 2024년 10월부터, LSCUS는 2Q25부터 동사 연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SCUS 인수를 통해, 1)미국 현지에 중저압 송배전케이블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되고, 2)해외 매출 비중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지애플은 자동차/선박용 전선, 배전용 LV 케이블, 전선 피복용 컴파운드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2023년 매출액 4,613억원, 영업이익 49억원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지애플 인수로 연간 약 5천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와 함께, 전선 소재 기술력 및 생산 능력을 내재화하게 되었다. 또한 지애플의 종속회사인 세종전선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케이블 제품 CAPA를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지애플의 영업이익률이 현재 동사 이익률보다 낮은 1%대라는 점에서, 전사 이익률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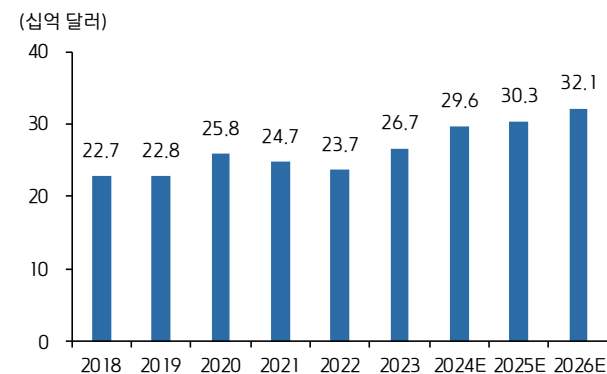
LSCUS(LS Cable&System USA)는 미국에서 중저압케이블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2023년 매출액 2,820억원, 영업이익 약 15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22년 대비 매출액이 54% 성장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LSCUS 인수 후, 연간 3,000~4,000억원 규모의 전력선 매출 증가와 함께 2025년 전력선 내 해외 매출 비중은 27%로 상승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도 23년 5% 수준에서 향후 매출 성장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사 이익률 개선이 기대된다.

### 실적 전망

2024년 매출액 1조 6,911억원(+13% YoY), 영업이익 481억원(+10% YoY, OPM 2.8%)을 전망한다. 국내 및 아시아 지역 매출은 성장했음에도 수익성 높은 북미향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며, 영업이익 성장률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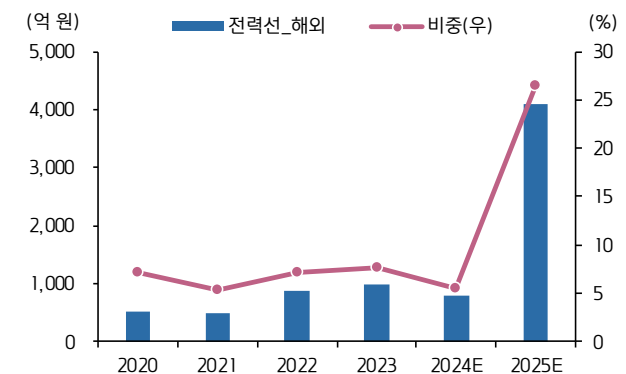
2025년 매출액 2조 5,267억원(+49% YoY), 영업이익 875억원(+82% YoY, OPM 3.5%)을 예상한다. 지애플, LSCUS 자회사 편입 효과로 연결 매출액 성장률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LSCUS 인수, 미국 지역 사업 성과(유통 제품 확대, 전력청 수주)로 북미향 매출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

### 미국 송전망 투자 규모



자료: FERC, EEI,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전력선 해외 매출액 및 비중



자료: 가온전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5년 LSCUS 매출 포함

## 가온전선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E	2025E
<b>매출액</b>	<b>8,303</b>	<b>8,574</b>	<b>10,704</b>	<b>14,165</b>	<b>14,986</b>	<b>16,911</b>	<b>25,267</b>
% YoY	-1%	3%	25%	32%	6%	13%	49%
전력선_국내	6,455	6,742	8,593	11,359	12,143	13,441	14,315
전력선_해외	569	522	478	875	996	790	1,086
통신선_국내	936	997	1,050	1,231	1,212	1,412	1,496
통신선_해외	342	313	583	699	635	518	570
지애피						750	4,800
LSCUS							3,000
<b>영업이익</b>	<b>71</b>	<b>127</b>	<b>166</b>	<b>285</b>	<b>437</b>	<b>481</b>	<b>875</b>
% YoY	38%	78%	31%	72%	54%	10%	82%
<b>영업이익률 (%)</b>	<b>0.9</b>	<b>1.5</b>	<b>1.5</b>	<b>2.0</b>	<b>2.9</b>	<b>2.8</b>	<b>3.5</b>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지애피'는 2024년 11월부터, 'LSCUS'는 2Q25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추정

## 신사업 해저케이블

동사는 LS전선으로부터 해저케이블 기술 이전을 받아 해상풍력 해저케이블(Inter-Array Cable) 시장으로도 진입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빠르게 커지고 있는 해상풍력 시장의 사업 기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S전선과 계열사들(LS에코에너지, 가온전선, LS마린솔루션)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생산 시작 시점 등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사는 올해 중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해저케이블 공장 신설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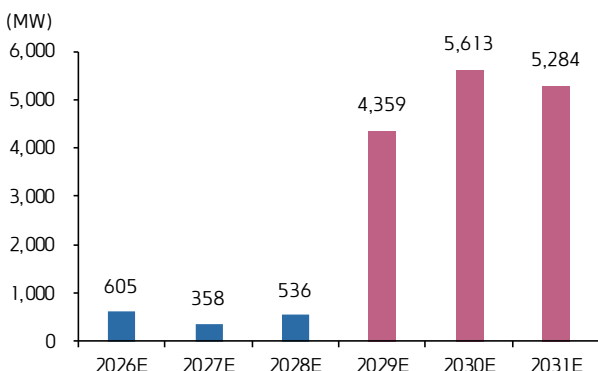
국내 및 글로벌 해상풍력 신규 설치량이 2029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의 2024년 하반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상풍력 신규 설치 용량은 2028년 536MW에서 2029년에는 4,359MW로 급증할 예정이다. GWEC의 글로벌 해상풍력 전망에서도 2029년 신규 설치량이 25.6GW(중국 제외)로 전년 대비 44% 급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상풍력 신규 설치량이 2029년에 급증한다는 건, 건설 시 필요한 해저케이블 수요는 2027~2028년부터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동사가 해저케이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신설해야 한다. 부지 매입부터 공장 건설 후 양산에 돌입하기까지는 적어도 3년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해저케이블 사업 준비에 착수해야만, 해저케이블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28~2029년에 LS전선과의 협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사가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Inter-Array Cable 공급을 담당할 경우, 2029년부터는 연간 최대 7천억원 이상의 매출 발생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해상풍력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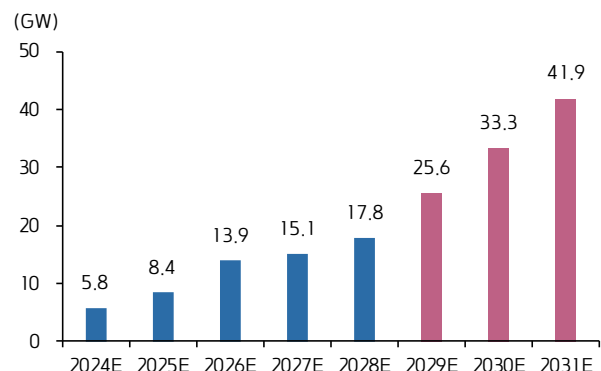
2023년 국내 해상풍력 신규 설치량은 약 170MW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초기 국면에 있다. 그럼에도, 해상풍력 입찰 규모는 23년 약 1.5GW, 24년 약 1.9GW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최대 8GW 규모로 입찰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해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통해, 중국산 기자재 도입을 방어하기 위해 비가격지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하였다. 이로써, 향후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국내 기자재 업체들의 사업 기회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연도별 신규 해상풍력 설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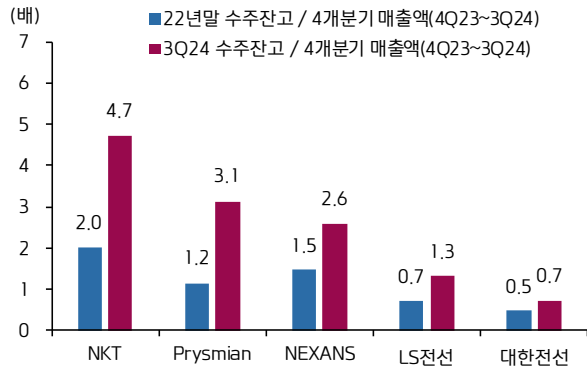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전망(중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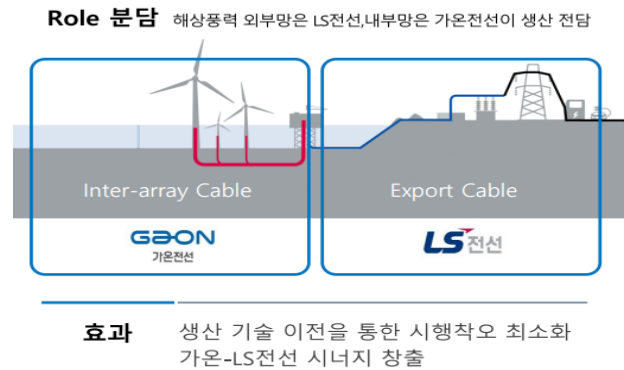
자료: GWEC,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해저케이블 업체별 전선 수주잔고/매출액



자료: 각 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가온전선-LS전선 역할 분담 계획



자료: 가온전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 해상풍력 해저케이블 시장 및 가온전선 예상 매출 규모 추정

(단위: MW, 억 원)	2026E	2027E	2028E	2029E	2030E	2031E
해상풍력 신규 설치량 ①	605	358	536	4,359	5,613	5,284
MW 당 공사비 ②	70	70	70	70	70	70
총 공사비 ① X ②	42,350	25,060	37,520	305,130	392,910	369,880
공사비 중 Inter Array Cable 비중 ③	5%	5%	5%	5%	5%	5%
Inter Array Cable 시장 규모 ① X ② X ③	2,118	1,253	1,876	15,257	19,646	18,494
LS 그룹 수주 점유율 ④	50%	50%	50%	50%	50%	50%
가온전선 해저케이블 예상 매출 ① X ② X ③ X ④	1,059	627	938	7,628	9,823	9,247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주가 전망

2025년은 동사가 국내외에서 견조한 전선 수요에 기반한 유기적 성장과 신규 자회사 편입에 따른 비유기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해가 될 예정이다. 특히, 마진이 높은 전력선 해외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82%, 0.7%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저케이블 신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도 올해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타임라인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그간 동사는 초고압/해저케이블 대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중저압케이블 중심의 매출 구조 때문에 타 업체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주력 제품 수출 비중 확대와 고부가 제품으로의 다변화 기대감이, 이를 해소시켜줄 것이라 판단한다. 동사와 함께 LS그룹에 속해 있는 LS에코에너지, LS마린솔루션의 주가는 1)신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거나, 2)LS전선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 또는 가시화될 때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비춰볼 때, 해저케이블 사업 계획 구체화 및 관련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올해에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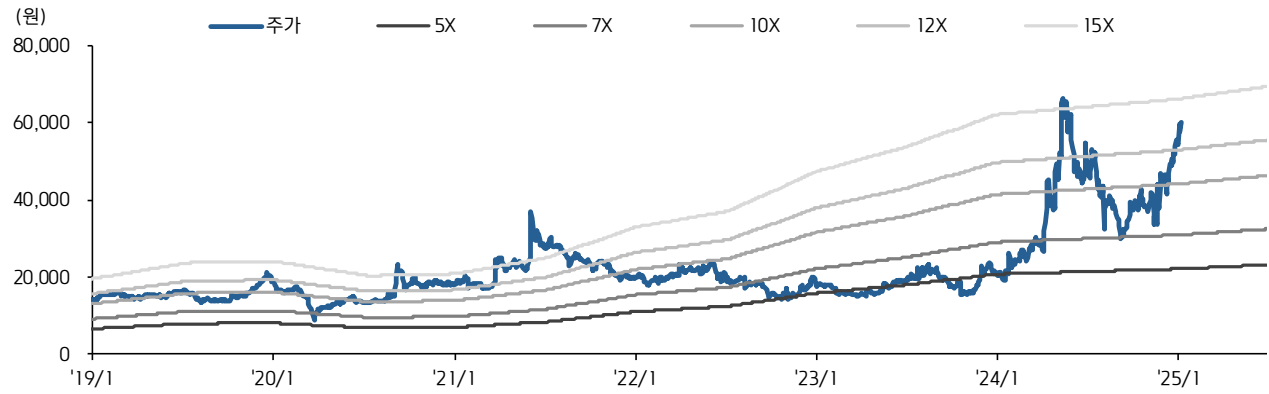
## 가온전선, 국내 유사 기업 재무 지표 비교

회사명	PER (배)		EPS 증가율 (%)		매출액 증가율 (%)		영업이익 증가율 (%)		영업이익률 (%)	
	24E	25E	24E	25E	24E	25E	24E	25E	24E	25E
가온전선	15.2	13.8	46.5	10.0	12.8	49.4	9.9	82.0	2.8	3.5
LS에코에너지	31.6	27.8	637.8	13.8	17.8	7.4	23.0	10.7	5.6	5.8
LS마린솔루션	44.5	46.7	-21.2	-4.5	78.0	19.1	-8.4	8.3	9.5	8.7
대한전선	25.5	23.2	-9.0	9.9	17.4	11.8	51.6	16.5	3.6	3.8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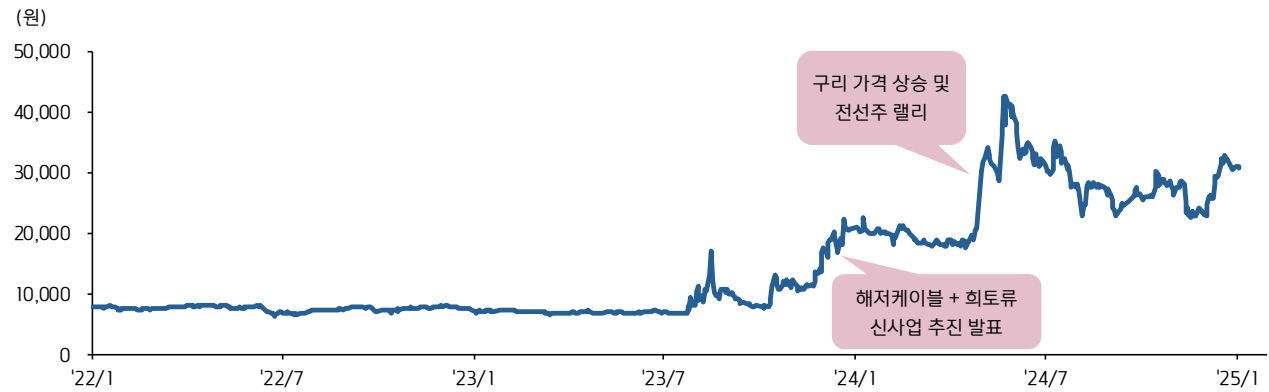


### 가온전선 12개월 Forward P/E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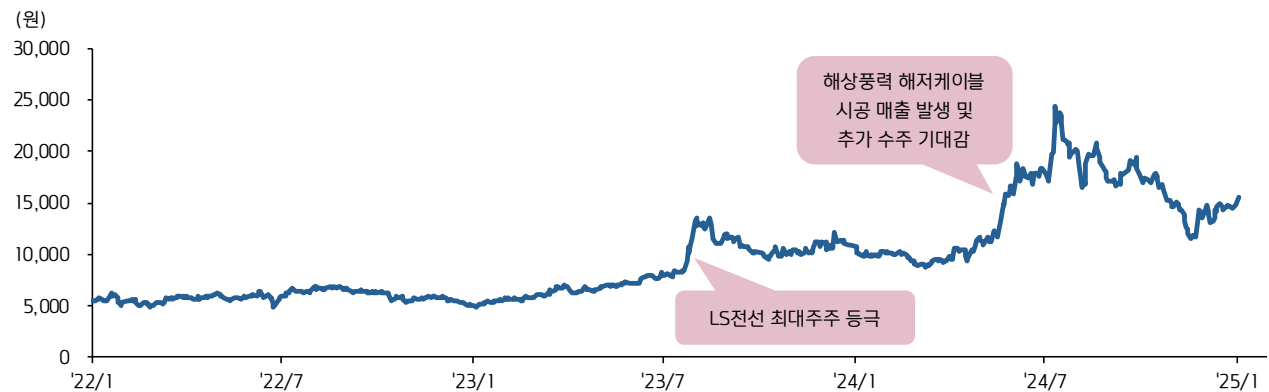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LS에코에너지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LS마린솔루션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십억 원)

12월 결산, IFRS 연결	2020	2021	2022	2023	2024E
<b>매출액</b>	857.4	1,070.4	1,416.5	1,498.6	1,616.1
매출원가	809.5	1,008.6	1,327.9	1,385.9	1,499.3
매출총이익	48.0	61.8	88.5	112.7	116.8
판매비	35.3	45.2	60.1	69.0	69.7
<b>영업이익</b>	12.7	16.6	28.5	43.7	47.1
<b>EBITDA</b>	20.6	24.6	36.9	52.0	56.5
영업외손익	-0.7	-7.8	-15.2	-15.3	-6.1
이자수익	0.2	0.1	0.2	0.7	0.8
이자비용	4.1	3.9	5.7	7.8	7.4
외환관련이익	10.3	4.3	15.8	12.9	5.0
외환관련손실	5.8	10.5	23.7	10.5	7.7
종속 및 관계기업손익	-0.2	-1.2	-6.3	-7.9	0.0
기타	-1.1	3.4	4.5	-2.7	3.2
<b>법인세차감전이익</b>	11.9	8.8	13.3	28.4	41.0
법인세비용	2.4	2.9	2.8	10.5	9.0
계속사업손익	9.5	5.9	10.5	17.9	32.0
<b>당기순이익</b>	9.5	5.9	10.5	17.9	32.0
<b>지배주주순이익</b>	9.5	5.9	10.5	17.9	32.0
<b>증감율 및 수익성 (%)</b>					
매출액 증감율	3.3	24.8	32.3	5.8	7.8
영업이익 증감율	78.4	30.7	71.7	53.3	7.8
EBITDA 증감율	49.5	19.4	50.0	40.9	8.7
지배주주순이익의 증감율	73.8	-37.9	78.0	70.5	78.8
EPS 증감율	73.9	-38.4	72.0	41.4	27.3
매출총이익율(%)	5.6	5.8	6.2	7.5	7.2
영업이익률(%)	1.5	1.6	2.0	2.9	2.9
EBITDA Margin(%)	2.4	2.3	2.6	3.5	3.5
지배주주순이익률(%)	1.1	0.6	0.7	1.2	2.0

##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 원)

12월 결산, IFRS 연결	2020	2021	2022	2023	2024E
<b>영업활동 현금흐름</b>	4.0	-11.3	25.5	19.4	27.1
당기순이익	9.5	5.9	10.5	17.9	32.0
비현금항목의 가감	18.6	36.7	14.4	38.3	28.3
유형자산감가상각비	7.9	8.1	8.4	8.3	9.4
무형자산감가상각비	0.0	0.0	0.0	0.0	0.0
지분법평가손익	-0.2	-1.2	-6.3	-7.9	0.0
기타	10.9	29.8	12.3	37.9	18.9
영업활동자산부채증감	-24.3	-52.4	1.4	-29.1	-17.5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감소	15.3	-61.7	-34.2	-53.2	-7.8
재고자산의감소	-9.2	-36.7	-19.7	6.0	-16.2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증가	-19.3	76.5	45.2	4.4	23.3
기타	-11.1	-30.5	10.1	13.7	-16.8
기타현금흐름	0.2	-1.5	-0.8	-7.7	-15.7
<b>투자활동 현금흐름</b>	-10.3	-11.2	-5.4	-13.4	-29.1
유형자산의 취득	-7.6	-9.4	-6.7	-10.2	-30.0
유형자산의 처분	0.2	0.2	0.0	2.5	0.0
무형자산의 순취득	0.6	0.0	0.9	-0.4	-0.1
투자자산의감소(증가)	0.3	-0.8	5.7	7.6	0.0
단기금융자산의감소(증가)	-5.8	-8.2	-6.2	-15.3	-1.5
기타	2.0	7.0	0.9	2.4	2.5
<b>재무활동 현금흐름</b>	10.1	39.0	9.0	9.4	-5.9
차입금의 증가(감소)	18.6	47.2	-5.2	5.6	-8.8
자본금, 자본잉여금의 증가(감소)	0.0	0.0	23.2	13.6	12.5
자기주식처분(취득)	0.0	0.0	0.0	0.0	0.0
배당금지급	-2.4	-2.4	-1.7	-0.2	0.0
기타	-6.1	-5.8	-7.3	-9.6	-9.6
기타현금흐름	0.0	0.0	0.0	0.0	-13.4
<b>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b>	3.8	16.6	29.0	15.3	-21.3
기초현금 및 현금성자산	6.3	10.1	26.7	55.7	71.0
기말현금 및 현금성자산	10.1	26.7	55.7	71.0	49.7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주: 지오피 편입 이전 기준

##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 원)

12월 결산, IFRS 연결	2020	2021	2022	2023	2024E
<b>유동자산</b>	285.8	401.9	491.8	545.3	56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1	26.7	55.7	71.0	49.6
단기금융자산	21.4	29.6	35.8	51.1	52.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71.1	232.2	255.6	294.4	302.2
재고자산	70.3	107.0	126.6	121.2	137.4
기타유동자산	12.9	6.4	18.1	7.6	19.2
<b>비유동자산</b>	256.7	257.0	260.6	256.5	292.0
투자자산	14.4	15.1	9.4	1.8	1.8
유형자산	223.2	232.9	235.3	239.5	260.1
무형자산	6.2	3.1	2.2	2.7	2.8
기타비유동자산	12.9	5.9	13.7	12.5	27.3
<b>자산총계</b>	542.5	659.0	752.3	801.8	853.0
<b>유동부채</b>	192.3	246.5	319.3	376.8	409.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99.8	174.7	222.3	227.6	250.9
단기금융부채	79.5	64.3	79.0	134.9	149.0
기타유동부채	13.0	7.5	18.0	14.3	9.1
<b>비유동부채</b>	86.6	144.3	129.9	94.0	71.0
장기금융부채	49.0	113.4	100.7	52.0	29.0
기타비유동부채	37.6	30.9	29.2	42.0	42.0
<b>부채총계</b>	278.9	390.9	449.3	470.8	480.0
<b>지배지분</b>	263.6	268.1	303.1	331.0	373.1
자본금	20.8	20.8	31.8	36.8	49.3
자본잉여금	24.3	24.3	36.5	44.1	44.1
기타자본	-1.6	-1.6	-1.6	-1.6	-1.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3	-4.7	-3.8	-3.6	-6.0
이익잉여금	226.3	229.3	240.2	255.3	287.3
비지배지분	0.0	0.0	0.0	0.0	0.0
<b>자본총계</b>	263.6	268.1	303.1	331.0	373.1

## 투자지표

(단위: 원, %, 배)

12월 결산, IFRS 연결	2020	2021	2022	2023	2024E
<b>주당지표(원)</b>					
EPS	1,827	1,125	1,936	2,737	3,484
BPS	50,669	51,544	46,523	44,987	37,841
CFPS	5,405	8,172	4,604	8,597	6,563
DPS	600	420	50	0	0
<b>주가배수(배)</b>					
PER	9.8	17.5	9.6	7.7	15.6
PER(최고)	14.2	36.4	13.2		
PER(최저)	4.6	14.7	7.1		
PBR	0.36	0.38	0.40	0.47	1.43
PBR(최고)	0.51	0.80	0.55		
PBR(최저)	0.17	0.32	0.29		
PSR	0.11	0.10	0.07	0.09	0.31
PCFR	3.3	2.4	4.0	2.5	8.3
EV/EBITDA	9.1	8.9	5.8	3.8	10.8
<b>주요비율(%)</b>					
배당성향(% , 보통주, 현금)	24.8	28.2	1.5	0.0	0.0
배당수익률(% , 보통주, 현금)	2.8	1.8	0.3	0.0	0.0
ROA	1.8	1.0	1.5	2.3	3.9
ROE	3.7	2.2	3.7	5.6	9.1
ROIC	3.4	3.3	5.0	6.2	8.2
매출채권회전율	4.9	5.3	5.8	5.4	5.4
재고자산회전율	13.5	12.1	12.1	12.1	12.5
부채비율	105.8	145.8	148.2	142.2	128.7
순차입금비율	36.8	45.3	29.1	19.6	20.3
이자보상배율	3.1	4.3	5.0	5.6	6.4
총차입금	128.5	177.8	179.7	186.9	178.1
순차입금	96.9	121.4	88.3	64.8	75.8
NOPLAT	20.6	24.6	36.9	52.0	56.5
FCF	-10.9	-40.4	24.4	-3.0	-1.4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7일 현재 '가온전선'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추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추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추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추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추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4/01/01~2024/12/31)

매수	중립	매도
96.37%	3.63%	0.00%